

구글에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보안처리 방안 제시에 구글 수용 안해… 안보 위험 가중할 우려 있어”

정부가 구글에 대해 국내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보안 협의체와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최상의 위성 영상 품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사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불허로 끝났다. 다만 우리 정부는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안보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번 불허했다고 추후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기업이 지도 반출을 신청했을 때 또다시 불허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구글의 반출 요구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 형태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태(전국 디지털지도)다. 반출 대상지역은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 센터(미국 등 세계 14곳)였다.

하지만 협의체는 위성 영상에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



현대자동차 수출 40주년 기념식

현대자동차가 지난 16일(현지시각) 에콰도르 피아킴시 팔라시오 드 크리스탈에서 ‘현대자동차 수출 4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아이오닉 신차 발표회 및 시승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인근 수출 선적장에 수출차량이 수출선에 오르기 전 대기하는 모습.

보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내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외 반출 가능 지리정보로 축척 1/25000 지도데이터를 국외반출 가능 형태로 가공해 2014년부터 영자한 수치지형태(전국 디지털지도)다. 반출 대상지역은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 센터(미국 등 세계 14곳)였다.

최 원장은 “주요 쟁점은 안보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보 관련 부처는 위성 영상에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 위험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구글 지도반출 찬반 보다는 국익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있었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간정보 R&D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광 산업 관련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도 지도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국내포

탈에서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더라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이 부분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통상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다른 국가보다 강하게 들어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구글에 반출을 불허하는 것은 구글이 4륜구동 모델을 선택했고, 전륜구동 방식을 대부분 채택하는 도심형 SUV ‘코란도 C’와 ‘티볼리’도 각각 19.1%, 7.7%로 나타나 경쟁 모델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쌍용차 ‘4륜구동’으로 성장세

대형 세단부터 SUV 모든 차종에 운영 “겨울철 아웃도어 활동 인구 증가로 주목”

쌍용자동차가 ‘4륜구동’을 앞세워 판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빙판길, 눈길에 안전성이 높아 겨울철에 특히 주목받던 4륜구동은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운전자가 늘며 더욱 인기가 높다. 쌍용차는 전 차종에 4륜구동 모델을 운영하며 이 같은 트렌드를 이끈다는 포부다.

18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코란도 스포츠’는 올해 누적 판매량 2만875대 가운데 사륜구동 모델이 1만8925대를 기록해 90.7%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란도 투리스모’와 ‘렉스턴 W’도 올해 90%가 넘는 고객들이 4륜구동 모델을 선택했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전체 판매량 4306대 중 96%, 렉스턴 W는 전체 4040대 가운데 91% 비중으로 집계됐다.

쌍용차는 국내 유일하게 플래그십 대형 세단 ‘체어맨 W’부터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W, 티볼리 등 SUV 모든 차종에 4륜구동을 운영하고 있다. ‘티볼리’는 소형 SUV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4륜구동이 적용됐다.

체어맨 W도 올해 70.8% 비중의 고객들이 4륜구동 모델을 선택했고, 전륜구동 방식을 대부분 채택하는 도심형 SUV ‘코란도 C’와 ‘티볼리’도 각각 19.1%, 7.7%로 나타나 경쟁 모델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눈길, 빙판길 등이 있는 겨울철에 안전성이 뛰어난 4륜구동 모델이 아웃도어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판매 비중에서도 4륜구동 모델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적용하고 있는 4륜구동 기



쌍용차 렉스턴 W

술은 ▲AWD ▲스마트 AWD ▲전장식 4륜구동 등 3가지다.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 등에 적용한 전자식 4륜구동은 주행 중 도로 조건이나 운전자 필요에 따라 스위치를 조작해 구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뒤 구동력을 50:50으로 배분해 눈길과 빙길 또는 험난한 도로에도 안전하며, 평소에도 직진 주행 안정성이 탁월하다는 설명이다.

‘뉴 코란도 C’에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AWD 시스템은 전자제어식 AWD 시스템을 적용해 일반도로에서는 앞쪽으로 100% 동력을 전달하며 눈길, 빙길 등에서는 자동으로 4륜구동으로 운행한다.

‘체어맨 W’는 AWD(올 휠 드라이브)를 적용해 전·후륜에 구동력을 40:60으로 상시 배분한다. 타이어와 노면 간 접지력을 향상시켜 코너링이 더욱 안전하고, 직진 주행시에도 안정적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뉴시스

삼성전자, 3분기 글로벌 판매량 1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23.6%—19.2%로 감소… 중국업체 약진

폰7 출시에도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 줄어든 4300만대를 기록했다.

로베르타 코자 가트너 책임연구원은 “갤노트7 사용자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나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애플의 아이폰7 플러스는 갤럭시7 단종으로 아주 작은 수혜만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이폰 시장점유율은 13%에서 11.5%로 감소했다.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은 8.5% 중국에서는 3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웨이는 애플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불과 약 2.8%p 좁히는 등 중국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화웨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늘어난 3248만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7.7%에서 8.8%로 끌어올렸다.

오포와 BBK는 각각 110%, 90% 증가한 2493만대, 1987만대를 팔아치웠

다. 두 회사 모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오포는 전체 판매량의 81%, BBK는 89%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오포와 BBK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가트너 측의 설명이다.

한편 올 3분기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판매량은 3억7300만대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안드로이드는 시장점유율 87.8%를 달성하는 등 전년 대비 3.1%가 늘었고, iOS는 1.5% 감소한 11.5%에 그쳤다. 윈도우는 0.4%, 블랙베리는 0.1%를 기록했다. /뉴시스

“한국, 트럼프 당선으로 취약해질 신흥국 2위”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향후 취약해질 수 있는 신흥국 2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프랑스 금융그룹 BNP파리바가 자체 분석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신흥국 취약성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총점 66점으로 말레이시아(71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BNP파리바는 대미수출비중, 수출의존도, 총수입 등을 고려해 취약성지수를 산출했다. 총점 100점에 가까울수록 취약성이 높을수록 한국은 조사대상인 신흥국 20개국 중 형기(66점)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23점으로 가장 낮고, 중국(49점), 필리핀(50점), 베트남(61점)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은 한국에 비해 타격이 작을 것으로 평가됐다.

BNP파리바는 “차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향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한국 수출의 하방리스크와 자본유출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불공정무역 관행 등을 교섭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실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이하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

MBC 아나운서 배현진